성추행 · 의료사고 · 법과 정의… '미스 함무라비'가 던진 돌

첫 방송부터 세상에 만연한 사건들 끌어 와
'묵직한 키워드' 극과 극 시선 풀어내 호평

'미스 함무라비'가 첫 방송부터 성추행, 의료사고 등 묵직한 키워드를 들고 극과 극 시선으로 풀어내 호평을 받았다.

지난 21일 오후 첫 방송된 JTBC 새 월화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에서는 학창시절 풋풋한 추억을 가졌지만, 서로 다른 신념을 품고 판사가 돼 시시각각 부딪히기만 하는 박차오름(고아라 분)과 임바른(김명수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박차오름은 남다른 패기를 가진 열혈 초임판사로 등장했다. 지하철에서 만난 성추행범을 응징하기도 하고,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성추행범을 응징하는 박차오름의 활약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후 이에 대해 한소리 하는 부장판사 한세상(성동일 분)에게 대항하듯 화려한 옷에 히잡까지 준비하기도 했다.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박차오름과 냉소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전하는 임바른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약자가 비명 지르는 게 떼쓰는 거로만 들리냐"며 임바른을 비판하는 박차오름과 그런 박차오름에게 "역시 상류사회 출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나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판사가 됐다. 법관의 임무는 세상을 바꾼다고 큰소리 치는 자들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는 임바른의 시각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미스 함무라비'는 첫 방송부터 실제로 세상에 만연하게 벌어지는 사건들을 끌어왔다. 성추행범 문제를 보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도 문제"라며 성추행 피해자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한세상의 한 마디는 성추행의 잘못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리는 일각의 편견을 고스란히 담아낸 대목이었다.

의료사고 부분도 마찬가지였다. "사람이 죽었는데 매정하게 말할 수 있냐"고 의문을 품는 박차오름과 "수술하다 사망했다고 다 의사 잘못이라면 어떤 의사가 메스를 들겠냐. 규칙대로 싸워서 진 거다. 그럼 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임바른의 대화는 이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기기 충분했다. 감정에 치우쳐 잘못된 판례를 만들어서는 안되는 법관의 시선과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을 그저 법과 시스템으로만 재단하려는 비인간적 행태를 비판하는 시선 모두 저마다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미스 함무라비'는 특히 법이 사회의 질서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정작 사회의 구성원을 지켜주지는 못하는 현실을 냉철하게 담아 호평을 받았다.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엄마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박차오름의 "어떤 게 정상이고 비정상인데"라고 묻는 절규는 정확함과 모호함 모두를 가진 법의 아이러니에 대한 촌철살인이었다. 법의 정의, 그리고 이 아이러니 가득한 법의 '사용 방법'에 대한 의문과 중요성을 던지는 '미스 함무라비'의 행보가 기대를 얻고 있는 이유다.

법정극 중 가장 뒷북이지만, 현직 부장판사 문유석 작가의 법관으로서의 고민과 경험이 녹아든 '리얼리티 법정극'이기도 한 '미스 함무라비'. 과연 '미스 함무라비'가 웰메이드 법정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컴백' 워너원, 6월 4일 스페셜 앨범 발매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그룹 워너원이 돌아온다.

워너원 측은 22일 새 스페셜 앨범 '1÷x=1(UNDIVIDED)'의 타이틀곡명 '켜줘(Light)'와 커버 이미지를 공개했다.

워너원의 신곡 '켜줘(Light)'는 첫 만남을 노래한 '에너제틱(Energetic)', 만남 이전의 불완전했던 너와 나의 이야기를 담은 'Beautiful', 찬란한 황금기를 약속했던 '약속해요(I.P.U.)', 'BOOMERANG(부메랑)'에 이어 어떠한 것으로도 나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성숙해진 워너원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돼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이날 베일을 벗은 커버 이미지에는 한층 물오른 비주얼을 뽐내고 있는 11명의 워너원 멤버들이 담겨 있다. 또한 듣기만 해도 설렘을 유발시키는 WANNA ONE이라는 이름과 새 스페셜 앨범명 '1÷x=1(UNDIVIDED)'가 적혀 있어 이번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

오는 6월 4일 발매되는 '1÷x=1(UNDIVIDED)'은 두 번째 미니앨범 '0+1=1 (I PROMISE YOU)'로 2018년 황금기를 약속한 워너원이 장밋빛 골든에이지를 완성해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담은 스페셜 앨범이다.

앨범명 '1÷x=1'은 유닛(÷)으로 보여질 워너원의 다양한 매력과 무한한 가능성(x), 하지만 결국 하나일 때 더욱 빛날 워너원(1)을 수식으로 형상화했다. 'UNDIVIDED'는 어떠한 것으로도 나뉠 수 없는 너와 나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은 부제로 한층 더 성장한 워너원의 음악성을 고스란히 담았다.

워너원은 이번 스페셜 앨범을 통해 타이틀곡 외에 유닛 프로젝트로 따로 또 같이, 각자의 개성이 돋보이는 곡을 선보인다. 이제까지 보지 못한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워너원의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만끽할 수 있을 예정이다.

여기에 워너원은 첫 번째 월드투어 콘서트 'Wanna One World Tour-ONE : THE WORLD'(이하 '원 더 월드')를 개최한다. 3개월간 전 세계의 워너블을 만나 언어의 벽을 허물고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어, 모든 순간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가득 채울 계획이다.

이로서 워너원은 모두가 사랑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워너원 고', 3개월간 13개 도시에서 총 18회 펼치는 월드 투어 '원 더 월드', 첫 번째 유닛 활동을 만나볼 수 있는 스페셜 앨범 '1÷x=1(UNDIVIDED)' 발매까지 이어지는 컴백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돼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까지 워너원의 황금기로 물들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워너원의 새 스페셜 앨범 '1÷x=1(UNDIVIDED)'은 오는 6월 4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방탄소년단, 적수 없다…국내 7개 차트 압도적 1위

그룹 방탄소년단에게 적수는 없다.

방탄소년단은 22일 오전 8시 기준 멜론·벅스·지니·올레뮤직·네이버뮤직·소리바다·엠넷 등 국내 주요 7개 음원 사이트에서 타이틀곡 'FAKE LOVE(페이크 러브)'로 차트 1위를 싹쓸이했다. 멜론 등 일부 차트에선 18일 발매한 정규 3집 'LOVE YOURSELF 轉 'Tear'(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수록곡으로 차트 줄세우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원 공개 후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상 수상과 컴백 무대 첫 공개로 이슈를 이어가면서 음원에 대한 관심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 음악방송 컴백 무대 등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FAKE LOVE' 등 정규 3집 수록곡에 대한 반응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방탄소년단은 정규 3집 'LOVE YOURSELF 轉 'Tear'(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이별을 마주한 소년들의 아픔을 표현했다. 'FAKE LOVE'는 그런지 록(Grunge Rock) 기타 사운드와 그루비한 트랩 비트가 기이한 음울함을 자아내는 이모 힙합(Emo Hip hop) 장르다. 운명인 줄 알았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이다. 이별의 감성을 방탄소년단만의 유니크한 노랫말과 사운드로 담아내 슬프지만,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슈츠'에는 왜 매회 여러 개의 사건이 등장할까

'슈츠(Suits)'는 일반적인 법정드라마와 분명 다르다.

KBS2 수목드라마 '슈츠(Suits)'(극본 김정민·연출 김진우)는 법정드라마 범주에 속한다. 극의 주요 무대가 로펌이고, 주인공들의 직업이 변호사이며, 이들이 힘을 합쳐 여러 사건과 마주하는 내용을 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법정드라마와 동일하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노(NO)'다.

우리는 그간 수많은 법정드라마를 봐왔다. 변호사가 주인공일 때도, 검사가 주인공일 때도, 판사가 주인공일 때도 있다. 이들 법정드라마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하나의 사건을 파헤치고 쫓아가며 시청자가 스토리를 따라올 수 있게 만든다. 사건의 종류, 입장이 다를지라도 이 같은 패턴만은 반복돼 왔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은 하나의 사건에 집중해서 풀어나가는 법정드라마에 익숙하다.

이런 측면에서 '슈츠(Suits)'는 분명 기존 법정드라마들과 패턴을 달리한다. 매번 두 주인공 최강석(장동건)과 고연우(박형식)을 중심으로 두 세 개의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두 남자는 각각의 사건들과 부딪히며 때로는 콤비 플레이를 펼치고, 사건을 해결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해결한 사건들은 절묘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또 하나의 메시지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준다.

1~2회에서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무료변론, 기업 M&A, 재벌가 아들의 마약투약 사건 등이 등장했다.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들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라는 근본적인 본능을 건드리며 절묘하게 연결됐다. 물론 사건마다 다른 입장에서 변론을 해야 했던 두 남자는 재판도 가지 않고 멋지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3~4회에서는 재벌가 이혼소송, 장 만드는 장인의 은퇴선언 사건이 벌어졌다. 차가운남자 최강석이 사랑을 무기로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승리했고, 가짜 고연우가 진짜들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장인의 마음을 돌려놨다. 두 남자, 사건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할 수 있다.

5~6회에서는 집단과 개인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두 사건이 등장했다. 하나는 제약회사 입장에서 신약 피해자들의 소송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케미컬회사에 집단 피해소송을 건 피해자들의 입장이었다. 이 역시 두 남자는 승리했다. 한편으로는 사건에 따라 입장과 가면을 바꿔 써야 하는 변호사들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 7~8회에서는 최강석이 과거 따르던 오검사(전노민)의 특검 조사, 학력위조 직원의 해고의뢰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다. 과거를 끊어내지 못한 최강석은 거꾸로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자기 사람들의 도움으로 과거를 끊어냈다. 가짜 변호사 고연우는 아이러니하게도 학력위조 사건과 마주했다. 그는 이 사건을 해결하며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입하며 새 다짐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순차적으로 사건을 풀어내던 '슈츠(Suits)'가 반환점을 돌았다. 일반적인 법정드라마와 접근법과 방향성이 다른 이 드라마가 그려낼 남은 8회에 궁금증이 쏠린다.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 방송.

오늘의 운세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음력 4월 9일)

▶쥐띠 재주는 많은데 내가 필요한 곳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때가 되면 찾게 된다. 모든 일은 서두르면 그르치는 법. '두드리면 열린다'는 이치를 생각하라. 3, 9, 11월생 애정 문제로 갈등을 빚겠다.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

▶소띠 모든 것을 신중히 행하라. 오랜 세월 몸담은 곳을 버리고 대책도 없이 변동한다면 한동안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가정은 자식 문제를 철저히 해야 탈이 없겠다. 7, 8, 9월생 노란색 옷을 피하라.

▶호랑이띠 한 번 해본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좋은 것은 멀어지고, 나쁜 것은 다가온다'는 말도 있다. 그 유혹을 받아들이다 큰 후회 속에서 살게 된다. 2, 8, 11월생 주변 사람들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일 생길 듯.

▶토끼띠 서로 사랑하면서 헤어졌다 다시 만나 사는 것은 힘든 인연이다.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합심해 살 때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다. 혼자 힘들게 뛰는 것보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욱 좋을 듯. 돼지, 원숭이띠 조언을 들어라.

▶용띠 포부를 너무 크게 갖지 말라. 현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에 끌려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결단을 못 내리면 더 큰 손실이 따를 듯. 3, 5, 12월생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손재를 막을 수 있다.

▶뱀띠 직장 상하관계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엎친 데 덮친다고 부부간에도 불화가 있겠다. 5, 9, 11월생은 침착하게 처신하라. 인내심 또한 필요하다. ㄱ, ㅅ, ㅂ 성씨 동, 북쪽에서 금전 관계 이뤄지겠으니 서두르지 말라.

▶말띠 가정이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면 어려움만 닥칠 뿐이다. 말을 타는 사람은 고삐를 잘 잡아야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는 법이다. 3, 8, 12월생 땀 흘린 대가로 서서히 풀리겠다.

▶양띠 마음 같아서는 하늘의 별도 따올 것만 같으나 막상 시작하고 보니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할 뿐이다. 가족과 함께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니 대화의 장을 열라. ㄱ, ㅈ, ㅂ 성씨는 남쪽에 힘이 필요하다.

▶원숭이띠 쉽게 벌려다 힘이 부쳐 일이 꼬이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알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서로 갈등이 없다. ㅅ, ㅁ, ㅇ 성씨 책임 있는 언행이 요구되는 때이니 매사 신중히 하라. 흰색으로 단장할 것.

▶닭띠 남들이 보는 사정과 달리 부부가 만나기만 하면 싸워 너무 피곤하다. 쌍방이 조금씩만 양보하며 이해하라. 5, 7, 12월생 숨겨둔 사람이 있다면 멀어질 시기가 오고 있음을 알라.

▶개띠 약랫사람을 다루는 데는 단점보다 장점을 칭찬하고, 스스로 단점을 깨우치게끔 이끌어 줘야 한다. 그래야 능률을 더 올리게 할 수 있다. 참으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는 법이다.

▶돼지띠 숨겨진 본인 능력을 맘껏 활용할 시기다. 자만심만 버린다면 곳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겠다. 적은 투자로 큰 소득을 얻는 호운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미련한 행위임을 알라. 기혼자는 가정에 충실히 할 것.